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한동훈**

〈목 차〉

머리말

I. 조선의 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조선정책 수립

II. 청일전쟁 이전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의 동학 정보 수집과 인식

III. 러시아의 개입과 삼국간섭 주도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조선정책 변화상과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19세기 후반 정치·사회적 모순과 개항 이후 가속된 외세의 경제적 침탈 속에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이 동학농민운동이다. 동학농민군은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조

* 이 논문은 2024년 10월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국제학술회의 “청일전쟁·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새로운 접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선 정부에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집강소를 설치하는 등 당대 대내외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청국과 일본의 군사 개입과 관련하여 주변 열강 세력은 새로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동학 농민운동의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동학농민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의 동향 역시 주목해야 한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청일전쟁의 기폭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삼국간섭과 같은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반봉건·반외세’의 대상인 서구 열강, 특히 삼국간섭을 주도했던 러시아의 동학농민운동 인식과 조선정책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1860년 조선과 국경 인접 이후 러시아는 새롭게 획득한 연해주 지역의 열악한 경제·군사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1884), 조러밀약,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을 경험하면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취약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선의 ‘현상유지’ 정책을 목표로 삼았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이러한 러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드미트렙스키, 일본 주재 무관 보가크, 중국 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 등 동아시아 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원인과 경과 등을 수집하여 본국에 보고했다. 이들은 동학농민 봉기의 발생 원인이 조선 사회 내부의 모순에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동학농민 봉기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본국 정부에 피력했다.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전망한 바와 같이 조선의 정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청일 양국 군대의 철병 문제를 놓고 청·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러시아는 철병 문제를 주도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영향력과 발언력을 높이려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청국과 전쟁을 시작하자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조정자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청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이 배상금, 요동 반도 할양 등 막대한 전리품을 챙기고 조선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자 러시아는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일본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게 되었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청·일의 대립에서 러·일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주제어 : 동학, 현상유지, 드미트렙스키, 보가크, 삼국간섭

머리말

19세기 후반 조선은 정치·사회적 모순과 개항 이후 가속된 외세의 경제적 침탈이라는 대내외 위기에 직면했다.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 통상이 이루어지고 외국인의 이주가 많아지면서 미국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각종 개화정책의 시행을 위한 세목의 신설, 세액 증대는 민중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또한 부정부패, 매관매직, 그리고 외국과의 통상을 이용한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1월 고부 봉기를 시작으로 4월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에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강소를 설치하여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등 당시 대내외 모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불러왔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고종은 청국에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 역시 천진조약을 근거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농민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던 청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주변 열강 세력은 새로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동학농민전쟁의 전개 과정, 동학농민운동의 정치·사상·사회경제적 배경, 농민항쟁의 성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¹⁾ 이들 선행연구를 통

1)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안병욱, 1988, 「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 『한국근현대연구입문』, 역사비평사; 鄭昌烈, 1991, 『甲午農民戰爭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991~1997, 『1894년 농민전쟁연구』 1~5, 역사비평사; 김명섭, 1994,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단국대학교

하여 근대이행기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인식과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의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당시 서구 열강의 동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은 청일전쟁의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의 결과 조선 내 일본의 영향력 확대, 삼국간섭 등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동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즉,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이라는 동아시아 판도를 바꾼 결말을 불러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운동이 러시아의 대조선정책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동학농민운동이 봉기했던 시기 조선과 러시아에 관한 연구는 동학농민운동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청일전쟁 당시 조선의 거중조정 요청, 러시아의 중재외교 등 청일전쟁을 둘러싼 정치·외교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²⁾ 그러나 청일전쟁 전후 시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의 성격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운동과의 관련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청·일 삼국에 파견되었던 러시아 외교관들이 동학농민운동을 단순한 민란이나 폭동이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파악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학농민군이 내걸었던 ‘반봉건·반외세’의 대상인 서구 열

석사학위논문: 조경달, 박맹수 옮김, 2008,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신영우, 2009,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 등.

2) 대표적인 조러관계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韓國史研究協議會 編, 1984, 『韓露關係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최문형, 2001, 『한국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지식산업사; _____, 2004,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지식산업사; _____, 2007,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와다 하루키 지음, 이웅현 역, 2019,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한길사;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강, 특히 삼국간섭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주도했던 러시아는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인식했을까? 또한 자국의 대조선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학농민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했다.

주지하듯이 개항 이후 조선에 대한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는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랐다. 동아시아 조약체제를 통한 상업적 이익 수호를 목표로 한 영국·독일, 조선과 국경을 접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가진 러시아는 조선의 정세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연해주 지역의 군사·경제적 조건의 취약성 때문에 월경민, 육로무역 등 국경 지역의 현안 해결이 절실했다. 그러나 병인·신미양요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 아래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평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개항 이후 조선이 적극적으로 서구 열강과 조약체결을 모색하던 시기에 청국의 공리인식 확대와 정치·외교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러시아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러시아에 대한 고종의 정치적 기대감의 교집합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열강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조러밀약과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조선에서 우월한 영향력 확대가 힘들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취약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선 내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견제하면서 조선의 영토불가침을 보장받는 현상유지 정책을 목표로 삼았다.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동아시아 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원인과 경과 등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동학농민운동이 초래할 조선의 정세 변화에 대한 견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들이 예견한 것처럼 동학농민운동에서 비롯된 청·일 양군의 파병과 철군문제, 청일전쟁 발발 등은 러시아가 종래 현상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조선의 국내외 정세변동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동학 인식과 동아시아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조선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조선정책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장은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인한 조선의 국내외 정세 변화와 이에 대한 동아시아 삼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의 견해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청일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정책 전환과 삼국간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 조선의 정세 변화와 러시아의 조선정책 수립

1860년 북경조약 체결을 계기로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연해주를 확보한 러시아에게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식량 사정 개선과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 등 연해주 지역의 안정화였다. 특히 새롭게 획득한 연해주 지역을 완전한 자국의 영토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자국 군대 배치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구성원 확보를 통한 지역 자체의 러시아화가 필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바로 접경 이후 대량으로 발생했던 조선 월경민이었다.

19세기 중엽부터 조·러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일대가 개발되고 강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함경도 북부 지역과 연해주 일대 변경민들 사이에는 물자 교류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러 접경 이후부터 이러한 관계는 단순 물자 교류가 아닌 집단으로 이주 정착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접경 이후 월경민의 급증한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전국적인 경작지 부족 현상, 계속된 재해와 흉년 등 조선의 내적인 원인도 있었지만, 러시아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때문이었다. 당초 러시아는 1861년 4월 27일 「동시베리아 아무르주 및 연해주의 러시아인 및

외국인 정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본토 농민을 비롯한 카자크인들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였다.³⁾ 그러나 열악한 교통망과 먼 거리로 인한 이주민의 도중 이탈·정착, 사고로 인한 높은 사망률 등의 이유로 이주 정책은 실패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의 월경·이주는 연해주의 안정화를 꾀했던 러시아에게 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로 월경·이주한 조선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상술한 규정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⁵⁾ 계속된 가뭄과 빈궁한 생활을 하던 함경도 북부지역의 조선인들은 러시아의 지원정책을 알게 된 이후부터 대규모로 월경이주하였다.

연해주 지역의 불안정한 입지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목표는 조선, 청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조선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인의 월경이주가 청국의 영토를 경유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북방 변경 지역의 안보와 인구 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청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공식 외교관계 수립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선

3) 해당 규정은 가구당 최대 100테샤타나(1테샤니타=1.092헥타르) 규모의 주인 없는 국유지에 대한 일시적 소유 및 완전 소유 선택 권리, 20년 간 토지사용세, 10년 간 징집 면제, 인두세 영구 감면 등의 특혜를 주었다(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56~57쪽).

4) 양승조, 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史叢』 87, 297~298쪽.

5) 러시아 정부는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를 식량 생산 및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조선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가구 당 15테샤타나, 약 50,000평(약 250마지기)에 이르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였다(Докладная записка исправляющего должность инспектора линейных батальоно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расположенных в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ковника Ольденбурга[연해주에 배치된 동시베리아 국경경비대대 겸열관의 보고서], 1864.9.25,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 러시아 국립 역사 문서보관소, 이하 'РГИА ДВ'), Ф.87, оп.1, д.278, л.9~10об).

은 지방관 차원에서 접촉만 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만 반복하였다.⁶⁾

조선과 러시아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계기는 1882년 조미조약 체결이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독일까지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시도하자 국경 지역의 현안 해결이 급선무였던 러시아 역시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임오군란의 여파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영국·독일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조약개정 협정을 통한 특권들을 균점하려고 하였다.

러시아는 조선과의 조약체결에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영국과 독일의 조약개정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정책을 고수하였다.⁷⁾ 다만 당시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능동적인 조선과의 평화적 관계 수립을 전제했다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이 공고하지 않은 당시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상황에 기인한 기회주의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즉, 연해주 지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제반 조건들이 안정화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조건부 ‘관망정책’이었다.

한편,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조선 내 공리인식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역설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조선의 우호적인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⁸⁾ 양국의 조약체결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게다가 조선의 외교·

6)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66~94쪽.

7) 당시 외무상 기르스는 조선의 국제적 지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르스는 조선에 대해 ‘관망정책(wait and see)’을 고수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외무장관 기르스가 차르에게 상주한 상주문], 1883.10.11,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이하 ‘АВПРИ’), ф.Китайский Стол, д.1, л.104~106).

8) ‘조선책략’의 유입으로 조선 내 공리인식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조선책략’ 유입 이후 러시아를 경계해야 한다는 청국의 주장에 대하여 고종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종은 직접 사람을 직접 연해주로 파견하여 러시아의 정황을 탐문하는가 하면, 1882년 8월 수신사 파견 시 박영효, 김옥균 등을 일행으로 함께 보내 일본주재 러시아공사와 직접 접촉하여 조약 체결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141~148쪽).

통상 업무, 해관 설치 및 근대화 사업을 위해 조선에 부임한 뮐렌도르프의 적극적인 친러정책은 조선과 러시아의 정치·외교 관계가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뮐렌도르프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청, 일본의 조선중립화를 구상할 만큼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러시아에 대한 고종의 우호적 인식과 뮐렌도르프의 친러정책은 갑신정변 이후 추진된 조러밀약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갑신정변 사후처리를 놓고 청·일 양국의 개전위기가 고조되자 고종은 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고자 했다.

고종의 보호 요청을 받은 러시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사태를 무관심하게 관망만 할 수는 없었다.⁹⁾ 러시아 외무상 기르스는 조선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주재 러시아공사관 서기 슈페이에르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에 도착한 슈페이에르는 고종, 뮐렌도르프와 면담하여 갑신정변에 대한 정보와 조선 정부의 보호국 요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였다.¹⁰⁾

슈페이에르의 보고에도 러시아 정부는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면 청과 일본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군사·경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조선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조선의 보호국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약속은 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지원에 대한 희망’, 즉 희망 고문을 심어주는 것이었다.¹¹⁾

9) [외무장관 기르스가 해군장관 웨스타코프에게 보낸 보고], 1884.12.5,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이하 'РГАВМФ'), ф.410, оп.2, д.4122, л.99~102об.

10)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민경현 옮김, 앞의 책, 291~292쪽.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영·러 간의 대립 결과로 발생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은 러시아의 조선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선 주재 러시아 대리공사 겸 총영사로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를 외교대표로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베베르는 하코다데 주재 부영사 겸 서기관(1871~1873), 요코하마 주재 부영사, 텐진 주재 영사(1876~884) 등을 역임한 동아시아 전문가였다. 특히 텐진은 사실상 청의 실세이자 조선 정책을 관할하는 이홍장의 거처가 있던 곳으로 조선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였는데, 베베르는 이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조선의 입지에 관한 식견을 넓히는 한편, 러시아의 조선 정책을 구상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베베르를 직접 조선에 주재시키면서부터 조선의 현지 사정을 직접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나 국왕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침 1886년 러·청 양국 간에 조선의 현상상태 보장과 조선 영토 불가침을 합의한 ‘리-라디첸스키 구두협정’이 체결되자 거문도 점령 사건을 둘러싼 영·러 간의 경색 국면도 해소되었다. 베베르는 조선에 부임한 이후부터 육로통상장정 체결, 조선 내 러시아의 이익 보호 등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하지만 1880년대 후반부터 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 열강으로부터 조선 문제에 대한 견제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조선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1888년 5월 8일에 개최된 특별회의는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노선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²⁾ 특별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외무상 기르스, 외무성 아시아국장 지

11) [차르 알렉산드르 3세가 재가한 5등관 베베르에게 하달된 비밀훈령 사본], 1885. 4.25, АВГ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д.214, л.27~52об.

12) 1888년 특별위원회 회의록은 Первые шаги рус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на

노비예프, 프리아무르 총독 코르프 등은 ①러시아의 조선 병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 확인 ②일본의 조선정책 지지 ③조선에 대한 청의 종속관계 강화 시도 차단을 논의하였다. 요컨대 특별위원회는 조선 문제에 대하여 ‘리-라디젠스키 구두협정’을 준수하여 조선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지만, 만약 청이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점령한다면,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분명 기존 ‘관망정책’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건, 즉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개입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888년 8월 7일자 특별훈령으로 다음과 같이 베베르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로서는 조선을 획득하거나 조선을 우리의 단독 보호 하에 두기를 바랄 이유가 전혀 없다. 태평양 연안의 우리 군의 현재 위상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고 광대한 해안선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게다가 청국과의 현재 관계를 침해하면서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반드시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중략)…… 조선을 둘러싸고 청국과 충돌하는 것은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즉각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한국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베이징에 뿌리를 두고 악의를 품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근거 없는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 방침은 1886년 북경 대리공사 라디젠스키와 이홍장 사이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를 확고히 고수하겠다는 확신을 청 정부에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와 청국이 한반도 불가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¹³⁾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Красный архив Т.3(52)[이하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1936, с.54~61에 수록.

13) Копия с весьма секретной депеш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и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нсулу в Сеуле[외무장관이 서울총

러시아 정부는 베베르에게 淸 정부와의 관계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입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선 정부에 권고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불쾌한 돌발 사건으로부터 조선이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확신을 조선 정부에 심어주는 한편, “이러한 사건을 제거하기 위해 북경에서 항상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즉,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은 대청관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사활적 이익은 이러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뒤따르는 모든 것을 예방하는데 있다는 점을 베베르에게 훈령으로 강조하였다.

베베르는 러시아 정부의 훈령대로 조선 내 정치 상황에 개입하기보다는 조선 속방화 정책을 강화하려던 청을 견제하였다. 그는 청국의 강요에 다른 열강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조선이 청국에 흡수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청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평형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도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의 단일한 보고서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러시아 외무성 내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러시아의 조선정책은 연해주 지역의 취약한 경제적·군사적 상황과 청국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조러 조약 체결 이후 조러밀약과 거문도 점령 사건을 경험한 러시아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선 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타국의 영향력 침투를 견제하고자 했다. 즉, 러시아는 조선의 자주성과 기타 열강의 조

영사에게 보낸 비밀문서 사본], 1888. 7. 26,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1888-1891гг, д.2, л.93~97об; Шифрованная инструкция статс-секретаря Гирса Поверенному в делах в Сеуле Веберу от 25 июня 1888г. №.96, [외무장관 기르스가 서울대리공사 베베르에게 보낸 암호 훈령], 1888. 7.7, АВПРИ, ф.Миссия в Сеуле, оп.768, 1884-1908гг, д.6, л.44~47об.

선 불가침을 항상 보장받고 유지하려고 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현상유지를 위협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삼국에 파견되었던 러시아 외교관들은 이에 대한 소식과 정보 수집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II. 청일전쟁 이전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의 동학 정보 수집과 인식

1888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러시아의 조선 정책은 조선의 대규모 농민 봉기를 비롯한 청·일 간의 대립과 같은 극동 지역의 불안정한 군사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발생한 청·일 간의 군사 충돌은 러시아의 조선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건이었던 만큼 동아시아 국가에 파견된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일찍부터 조선의 농민 봉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베베르는 조선에 부임할 때부터 조선의 국내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소요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베베르는 아시아국장 지노비예프에게 보낸 1890년 1월 5일자 보고¹⁴⁾를 통해 ‘고종의 생명을 상대로 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동학에 대한 내용도 보고하였다. 베베르는 소문의 발생 원인이 수원에서 발생한 소요 때문이었는데, 당시 그곳에서 일부 왕족들에게 격분한 백성들이 그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심지어 ‘동학’이라고 불리는 비밀 종파를 전파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베베르는 동학이라는 종파를 “러시

14) Донесение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Корее К. И. Вебера директору Азиатского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Д И. А. Зиновьеву. Сеул, 24 декабря 1889 г. №.84, 1889.1.5, АВПРИ, ф.Японский Стол, оп.493, д.2, л.280~285.

아의 강신술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표식과 상형문자를 연구하고 반복하는 동안 인간의 정신이 멀리 떨어진 모든 장소로 이동할 수 있거나 혹은 최면의 꿈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행동이나 사고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했다.

동학에 대한 베베르의 미흡한 인식은 그가 동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문제로 자신을 방문한 민영식에게 문의하자 조선 정부조차도 동학과 그것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할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베베르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소요를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는데, 거기에 불꽃이 떨어지면 언제든 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사회적 폭발의 주된 원인이 권력을 가진 양반들의 부정부패였음을 지적했다.

베베르의 지적대로 1890년대 전후 조선의 국내 정세는 농민 봉기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1891년 8월 휴가를 받은 베베르를 대신하여 러시아 공사로 부임한 드미트렙스키(Павел Андреевич Дмитриевский)¹⁵⁾ 역시 조선의 국내 정세를 불안정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조선 내 청·일의 대립뿐만 아니라 조선의 불안정한 내부 상황, 즉 내분 발생 시 러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조선 부임 이후 드미트렙스키는 다른 열강의 공사들과 조선 관료들을 만나 조선의 정치적 사건, 열강의 조선 인식과 외교정책, 각종 소문 등을 수집했다.¹⁶⁾ 드미트렙스키가 공사로 재직하던 1891~1893년 시기는 조선 속방화정책의 강화를 통한 청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차관·재정·무역 등 비군사적 방법을 통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15) 『구한국외교문서』 제17권 아안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86~187쪽.

16) 드미트렙스키는 부임 기간 동안 입수한 소문, 정보 등을 일기로 남겼다. 드미트렙스키 일기는 박재만, 2013,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선인, 148~280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골화되던 시기였다.

드미트랴프스키는 ‘인접국에게 가장 좋은 정책은 혁명들을 예방하려는 노력이며, 인접국들에게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조선의 국경 안정, 정치적 상호관계의 안정성과 명확성, 무역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드미트랴프스키는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조선 내 청국과 일본의 미묘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정부에 지속적으로 조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드미트랴프스키는 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도 주목하였다. 당시에는 밀과 쌀의 수출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여 백성들의 봉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동학농민운동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당시 조선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1892년 1월 9일 자 드미트랴프스키 일기에는 시내와 대로에서 대놓고 강도짓을 하는 군인들을 조선 정부가 처벌하지 못한 사건이 등장한다.¹⁷⁾ 당시 조선 정부가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우려 때문이었다. 만약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 대상은 서양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당시 군인들이 모든 물건의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에 들어온 외국인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드미트랴프스키가 “아주 위험한 시기다”라고 일기에 쓸 만큼 당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1892년부터 드미트랴프스키 일기에는 동학 세력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동학이나 농민 폭동 등에 대한 언급이 늘어나지만, 단편적인 내용이 대다수이다. 예를 들면, 1892년 7월 25일 조선 주재 프랑스 영사였던 이폴리트 프랑탱이 선교사들로부터 외국인 전체, 특히 청국인과 일본인을 규탄하는 패서(掛書)를 받았는데, 외국인들을 ‘바다의 도둑’으로 불렀다고 한다.¹⁸⁾ 1893년 4월 1일에는 미국 공사 허드의 집 대문과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을 가르치는 학교 대문에 격문이 붙기도 했다.¹⁹⁾

17)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181~182쪽.

18)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199쪽.

또한 1893년 4월 4일 동학당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서울의 유생들은 고종에게 동학 대표들의 사형을 요구하였으며, 4월 6일에는 동학교도들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 닭고기와 개고기로 동학교도를 고문하는데 참석하라는 호남 지방 선비들의 호남장보(湖南章甫)라는 격문을 소개하기도 했다.²⁰⁾ 그 외에도 유생들의 동학도 조사 및 처벌 상소문 제출, 선무사 파견, 평안도 지역 함종민란²¹⁾ 상황 등 파편적인 내용들도 언급되었다.²²⁾ 특히 드미트랴프스키 일기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 체류하였던 외국인들이 동학농민 봉기 및 민란과 관련하여 신변의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드미트랴프스키는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여 1893년 4월 6일 러시아 외무성의 시시킨 외무상 대리에게 발송하였다.²³⁾ 그는 서울로 상경한 동학 대표들의 목적이 최제우의 신원 회복이었으며, 이에 대한 고종의 반응을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고종은 동학 농민 봉기의 원인을 백성들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감독 소홀로 보았으며, 이 교에 경도된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 유교 원리를 보급시키기 위한 학문지침서 작성을 지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미트랴프스키는 앞서 서양인들에게 배포되었던 선교사들을 비난하는 격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이 격문이 동학교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²⁴⁾ 오히려 선교사를 반대하는 전통적 유교

19)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2쪽.

20)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3쪽.

21) 학술회의 발표 당시 해당 민란을 ‘동학교도 봉기’로 서술했으나, 토론을 통해 이를 ‘함종민란’으로 바로 잡아준 조재곤 선생님께 감사인사를 드린다.

22)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4~218쪽.

23)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75~178쪽.

24) 격문의 작성자가 동학도가 아니라고 해서 드미트랴프스키가 동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같은 보고서에서 ‘동학은 스스로 종파임을 표명하며, 매우 조잡하지만 자신들의 신앙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학교도들은 닭고기와 개고기를 먹지 않고, 병과 불행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적을 태워 그

지상주의자들의 소행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드미트렙스키는 당시 동학 농민 봉기 문제가 유교와 기독교 간의 대립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로 파악하였다.

한편, 드미트렙스키 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학 농민 봉기와 관련하여 원세개와 나눴던 대화 내용이다. 4월 22일 자 일기 내용을 보면, 당시 불안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원세개는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할 것이며, 소문이 무성하더라도 아무런 위험은 없다’고 확인했다.²⁵⁾ 5월 15일 원세개와의 만남에서도 원세개는 500명의 군인을 충청도로 파견하였으며, 동학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일이 없다고 장담하였다.²⁶⁾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의 고관들조차 폭동의 공포 때문에 가족을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다.²⁷⁾

5월 18일 드미트렙스키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접했던 조선의 정세를 시시킨에게 보고하였다.²⁸⁾ 그는 동학에 대한 서울 내의 소문과 백성들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5월 5일 원세개와 나눈 대화에서 드미트렙스키는 동학과 관련하여 현재 권력을 장악한 당파에 반대하는 서울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동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²⁹⁾ 실제로 원세개가 동학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미국 공사 허드의 귀뜸도 있다.³⁰⁾

5월 15일 드미트렙스키를 다시 만난 원세개는 동학도들의 활동이 실제로 서울 내 유력자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내 정간섭의 구실을 찾고 있는 일본의 계획에 동조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재를 물과 함께 마십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77쪽).

25)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17쪽.

26)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27쪽.

27)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23쪽.

28)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84~189쪽.

29)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86쪽.

30)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226쪽.

소행이며, 일본은 그를 조선에서 외국인을 추방하고 권력을 주겠다는 희망으로 유혹했다'고 하였다. 원세개의 대답을 들은 드미트렙스키는 동학과 결탁한 인물을 대원군으로 짐작하였다.³¹⁾

이처럼 드미트렙스키는 높은 물가,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과 이로 인한 동학 농민 봉기 상황 등 당시 조선 사회의 내부 모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는 그가 청일전쟁 이전 청·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이 아닌 일본과 청국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 농민 운동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전술했듯이 1890년대 초반부터 농민 봉기를 비롯한 조선 내 정치적 변란 상황에 대한 소식을 러시아 정부는 접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3년 조선의 대규모 농민 봉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 인물은 일본주재 무관 콘스탄틴 보가크 중령이었다. 보가크는 극동의 군사 정세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가 정보 수집을 위해 파견했던 무관으로 청국의 천진(1892)을 거쳐 일본(1893)에 부임한 인물이다. 보가크는 1895년 이전까지 극동에 부임한 유일한 주재 무관이었던 만큼 그의 보고 내용과 정보는 군사 부분과 관련된 러시아의 극동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 정부가 조선의 대규모 농민 봉기의 움직임, 즉 동학 농민에 관한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한 것은 1893년 5월 28일 보가크의 보고를 통해서였다.³²⁾ 약 10여 쪽에 이르는 그의 보고서는 1893년 당시 동학 농민들의 동향,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탈,

31)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187~188쪽.

32) Извлечения из донесе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Вогака [참모부 보가크 중령의 보고서 발췌], 1893.5.16(28),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азии, выпуск LX(아시아의 지리적 지형과 통계자료 수집, 제60편, 이하 'СГТСМА'), С.-ПЕТЕРБУРГ, 1895, С.1~10.

방곡령사건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조·일 간의 갈등 등 조선 정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였다. 이 가운데 동학 농민들의 동향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곳에서 받은 첫 소식에 따르면, 이 운동은 주로 선교사들, 특히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한국 문제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문제의 소요는 이미 올해 초 서울에서 감지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동학당이라는 결사를 선두로 여러 비밀결사의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불과 40~50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이미 회원 수가 최대 200,000명에 달하는 이 단체는 대부분 열렬한 광신자이며, 종교적, 정치적 목표를 모두 추구합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불교, 유교, 다신교가 혼합된 새로운 종교를 설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을 모든 외국인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불안은 처음에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언문과 인쇄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들은 벽에 붙여져 사람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이 혁명적인 문헌의 내용은 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위협과 이들을 즉각 조선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비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대외무역 착취자로 알려진 일본인도 추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선전은 현 왕조에 있어서 위협적입니다. 사실 조선의 매우 일반적인 전통에 따르면, 이 왕조의 통치 기간(500년)이 올해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왕조를 새로운 왕조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포고문이 발표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불안은 조선의 평화 유지에 관심이 있는 청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주재 외국대표들의 요청으로 영국, 미국, 일본, 청국의 군함들이 제물포로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비밀결사들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집회(을 3월)[보은집회: 필자]에서는 조선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 동학당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존중(?)[물음표는 원문 그대로 인용]
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
- 2) 과도한 착취로 백성을 핍박한 관료를 처벌할 것
- 3) 모든 외국인들을 조선에서 추방할 것

이러한 요구사항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기 전까지 집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과 함께 지방 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집회의 요구에 공감한 지방 당국은 첫 번째 사항은 즉각 이행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은 중앙 정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동학당은 자체적으로 24명(다른 출처에 따르면 30명)을 선발하였으며, 3월 31일 제출했던 요구사항의 지지를 위해 그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이들의 대표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10,000명이 넘는 교도가 수도로 향했고, 자신들의 요구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왕정을 전복시키고 외국인들을 무력으로 추방하기 위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부 일각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동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결사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들이 체포되고 외국 군함이 제물포에 도착하면서 대부분의 반군은 수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개월 이내에 외국인이 조선에서 추방되지 않는다면 모든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불안과 죽음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의 상대적 평온은 회복되었지만, 매일 다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밀결사들은 꽤 강력하지만 정부는 극도로 약하며, 그 일부는 비밀리에 혁명가들이 시작한 운동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밀줄 : 필자).

보가크는 1893년 지방에서 시작되어 중앙 정부에까지 전달된 동학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사건의 추이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하였다. 물론 일부 부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반대로 이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할

당시 조선 내에 유포되던 다양한 소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동학농민운동을 조선 왕조의 통치 기간과 결부하여 왕조 교체의 주기성을 언급한 점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를 통해 동학 농민 봉기를 왕조 교체의 전조를 위한 당위적 행동으로 여기는 당대 분위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 정부가 동학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보가크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동학농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한 유일한 일이 원세개를 통해 청국에 군대 파병 요청을 호소하는 것뿐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내부 불안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이를 진압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³³⁾

특히 그는 조선 정부가 너무 사소하면서도 사적인 이익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크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이 본질적으로 약간의 복잡함을 안고 조선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종류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³⁴⁾ 즉, 보가크는 동학농민운동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전망했던 것이다.

보가크의 이러한 전망은 곧 현실이 되었다. 1894년 2월 21일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는 고부 봉기 발생 이후 베베르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는 ‘조선에서 여름, 아무리 늦어도 가을이 지나기 전에 대규모 봉기가 발생할 것이며, 음모의 공모자들이 일본과 청국에서 무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배후는 대원군이다’라고 알렸다.³⁵⁾

33) Извлечения из донесе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Вогака [참모부 보가크 중령의 보고서 발췌], 1893.5.16(28), СГТСМА, с.6~7.

34) Извлечения из донесений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лковника Вогака [참모부 보가크 중령의 보고서 발췌], 1893.5.16(28), СГТСМА, с.10.

35) Отношение посланника в Токио Хитрово на имя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Кореѣ К.И. Вебера[조선주재 대리공사 베베르에 대한 동경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

히트로보가 알려준 정보대로 1894년 1월 고부 봉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한 농민군은 5월 31일 전주성까지 함락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농민 봉기와 관련하여 조선의 불안정한 정세 소식을 입수한 중국 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는 ‘모든 징후로 보아 조선 백성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음’을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동학 농민 봉기가 조선의 문제에 제3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실로 이어질 것’을 청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홍장은 “조선에서 일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일본 정부가 ‘사건의 방관자’로 과연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렸다.³⁶⁾

이어서 카시니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 정부가 조선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는 무관심했던 조선 전체가 언젠가는 공공연한 무질서로 빠져들어 불가피하게 청 그리고 어쩌면 일본의 간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극동의 외교대표와 아무르의 최고 수뇌부는 우리 이웃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하고, 사건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갑자기 맞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밑줄 : 필자).³⁷⁾

의 입장], 21(9) февраля 1894., № 50. Из эпохи японо-китайской войны Красный архив//Красный архив Т.1-2 (50-51)[이하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1932. с.4~5.

36) Восстание в Корее и реакция на восста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итая, Японии и западных держав[조선의 봉기와 이에 대한 중국, 일본, 서구 열강의 반응], 1894. 2.26,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5~6.

37) 위의 자료.

이처럼 카시니는 동학 농민 봉기 자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동학 농민 봉기가 청국과 일본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카시니의 이러한 견해는 동학 농민 봉기가 불러올 결말, 다시 말해서 조선의 현상유지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동학 농민 봉기에 대한 동아시아 주재 외교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작 러시아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894년 당시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인 베베르의 보고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정확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베베르가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1893년 11월 초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복귀한 베베르는 곧바로 카시니의 휴가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북경 주재 임시 대리공사직을 수행하다가 1894년 2월 3일 다시 서울로 복귀하였다. 즉, 동학 농민 봉기가 본격화되던 시기를 전후로 베베르는 조선에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업무 공백으로 인한 보고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서울 복귀 이후 베베르는 적극적으로 조선 내부 정세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약 3개월 간의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베베르는 1894년 5월 15일 동학 농민 봉기의 원인과 이들을 진압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조치 등 조선의 불안정한 상황을 외무상 기르스에게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베베르는 고종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만약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 봉기를 진압하더라도 근본적인 불만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폭동은 더욱 크게 재발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⁸⁾

결국 조선의 상황은 베베르, 카시니, 히트로보 등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전망한 바와 같이 더욱 심각해졌다. 1894년 5월 31일 동학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자 베베르는 6월 1일 청의 개입 가능성을

38) 벨라 보리소브나 박 지음, 최덕규·김종현 옮김, 2020,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151~152쪽;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69~270쪽.

언급하면서 군함 파견을 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는 조선의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조정자로만 남을 수 없게 되었다.

Ⅲ. 러시아의 개입과 삼국간섭 주도

동학 농민 봉기 이후 조선의 국내외 정세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었다. 원세개는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측의 출병 규모가 보병 1개 중대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일 충돌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이홍장에게 출병을 의뢰했다. 이홍장은 섭사성, 섭지초 등 약 2,800명의 북양 육군을 파병하여 아산에 주둔시켰으며, 거류민 보호 및 육군 수송선 호위를 위해 순양함 제원과 양위 2척을 정여창 제독과 함께 인천으로 파견하였다.

청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 역시 천진조약의 공동 출병 조항을 이용하여 혼성 제9여단 약 8,000명 규모의 군대 파병을 결정했다. 예상치 못한 일본의 대규모 파병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오토리(大鳥圭介) 공사에게 철병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인 보호를 핑계로 오토리는 대답을 회피했다. 오토리는 서울 도착 이후 원세개와 협의하여 양국이 공동철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였다.³⁹⁾

그러나 조선 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전주화약을 체결하자 오토리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빌미로 철병을 거부했다. 일본군이 공동철병을 거부하자 이홍장은 6월 22일 북경 주재 러시아공사 카시니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이홍장은 영국의 중재 자청에도 불구하고 ‘리-라디젠스키’ 협약에 따라 러시아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음을 강조했다. 청일 간 문제에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로 개입하

39)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71~272쪽.

면 극동지역의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 카시니는 이를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였다.⁴⁰⁾

카시니의 보고를 접한 러시아 외무상 기르스는 알렉산드르 3세에게 러시아가 청일 양국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상신했다.⁴¹⁾ 공동철병의 중재자 역할에 영국의 개입을 상당히 의식하였던 기르스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영국의 개입 방지라는 필요성 때문에 러시아가 청일 공동철병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영국과 러시아 간에 공동철병의 중재자 역할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부터 동학 농민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전주화약 체결로 동학 농민군이 해산하고 폐정개혁에 착수하는 등 조선의 지방 치안과 행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학 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청·일 양군의 충돌과 열강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이 조선의 현상유지를 지키기 위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조선 정부 역시 공동철병을 위한 서구 열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6월 24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병직은 영·러·프·독 등 서율주재 5개국 공사들에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종식되었으며,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일 양국이 합의하여 공동철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각국 정부에 보고해

40) 이홍장은 카시니에게 영국의 중재 자청에도 불구하고 '리-라디첸스키' 구두협약에 따라 러시아만이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영국의 제안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개입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Телеграмма посланника в Пекине министру ин. дел[북경러시아공사가 외무성에 보낸 전보]. 22(10)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6~17.

41)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 дел[외무성에서 차르에게 올린 상주문], 22(10)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5~16.

줄 것을 요청했다.⁴²⁾

조선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은 러시아 정부⁴³⁾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공동철병할 것을 압박했다. 6월 28일 기르스는 일본 주재 러시아공사 히트로보에게 ‘일본 정부에게 만약 청과 공동으로 조선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면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별도의 훈령을 보냈고⁴⁴⁾ 히트로보는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일본 정부는 영국을 이용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시도는 실패하였다.⁴⁵⁾

결국 일본군은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했다. 이어서 7월 25일 풍도 앞바다에서 청일 양국의 함대전을 시작으로 1894년 8월 1일 일본이 청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⁴⁶⁾

러시아 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사태로 판단하여 전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러시아 외무성은 베베르와 히트로보에게 ‘러시아는 군사행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군사적 점령 이후 조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상은 단지 일시적이며, 따라서 조선이 열강과 체결한 조약에 배치될 경우 조선이 일본인들에게 부여한 모든 양보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조선과 일본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북경주재 러시아공사에게는 淸 정부와 러시아

42)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73~274쪽.

43) Телеграмма секретаря миссии в Сеуле[서울공사관의 전보], 25(13)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9.

44)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 дел[외무성에서 차르에게 올린 상주문], 28(16) июня 1894 г.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с.19.

45)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영국 역시 7월에 미·프·독·러 등 열강의 공동개입을 제의했지만, 미국의 불개입 입장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영·러 간의 이해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독일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영국의 시도는 좌절되었다(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74~275쪽).

46)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풍도 해전 등 청일전쟁 전개 과정은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참고.

는 조선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진정시키는 것, 러시아 고유의 이익 보호를 추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⁴⁷⁾ 즉, 러시아가 당장 전쟁에 개입하지 않지만, 조선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침해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조건을 조선에 강요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 초기 러시아 정부는 현재 전황에서 누가 유리하며, 누가 승전국이 될 것인지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평양 진출과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이해관계가 침해받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⁴⁸⁾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1894년 8월 21일에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외무상 기르스, 육군 장관 시종무관장 반놉스키, 해군장관 시종무관장 치하체프, 재무상 비테, 외무차관 시시킨 등은 ‘교전국 중 한 나라가 승리하여 조선의 영토적 불가침성을 위반하려고 할 경우, 러시아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그 결과 ① 청일 양국의 적대행위 중단 설득을 위한 열강과의 외교적 협력 유지 ②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하도록 청일 양국 설득 ③ 조선의 현상유지 강조 ④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조선 국경 인근 지역 군대 강화 필요성 합의 등 결론을 내렸다.⁴⁹⁾

러시아의 현상유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선의 국내 정세는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1월 27일 조선 주재 러시아공사 베베르는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 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 가오루의

47) 박 보리스, 앞의 책, 394~395쪽.

48) 1894년 8월 7일 기르스는 ①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조선 북부지역에서 군사행동이 확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②가시케비치만(웅기만)과 라자레프항(원산)이 위치한 함경도 내 군사행동 금지 ③러시아의 영토와 인접한 곳에서 해군 거점을 점령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풀과 일본 모두로부터 확보할 것 등 러시아의 정책 수정에 대한 상주문을 알렉산드르 3세에게 올렸다(박 보리스, 위의 책, 395쪽;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31쪽).

49)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66~67.

적극적인 조선의 내정개혁 상황과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일본군·조선군의 출동 사실을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했다.⁵⁰⁾ 베베르는 동학농민군이 산속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전투를 했으며, 이런 쫓고 쫓기는 전투를 몇 차례 치른 뒤 산속으로 숨어버렸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산지 국가라는 조선의 지리적 특성에 유리한 전술을 동학농민군이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베베르의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내적으로 동학농민군의 진압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대외적으로도 청일전쟁의 승패가 일본 측에 기울어졌던 1895년 1월에 이르자 러시아 정부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모색해야 했다. 2월1일 개최된 2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일본의 요구가 러시아의 극동 이익을 침해할 경우 러시아의 대응책이었다. 일본의 조선 점령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조선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서구 열강과 함께 공동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었다. 그 결과 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불개입 입장을 유지하되 일본이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⁵¹⁾

그러나 러시아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청일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조선의 내정개혁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청일전쟁 이후 청국과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은 극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위협적이었다.⁵²⁾

50)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204~207쪽.

51)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73~74.

52) 일본은 淸에게 강화교섭의 조건으로 ①조선은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의 나라임을 확인 ②요동반도를 포함한 남만주, 대만 및 澎湖 제도의 할양 ③3억 냥의 배상금 지불 ④청·일 신조약 체결 ⑤3개월 후 철병 ⑥배상금 지불 종료 시까지 奉天府와 威海衛의 점령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일본의 요구 가운데 요동반도 할양 조건은 시

1895년 4월 11일 러시아 정부는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을 비롯하여 육군상 반놉스키, 총참모본부장 오브루체프, 해군상 치하체프, 재무상 비테, 임시 외무상 시시킨이 참석한 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본을 이용하여 영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은 일본과의 평화적 관계를 모색했던 반면, 일본의 남만주 점령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던 반놉스키는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가 어려우며 필요한 경우 무력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⁵³⁾

재무상 비테는 일본의 청일전쟁 발발 이유를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건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일본의 남만주 지역 점령을 계기로 향후 조선 전체의 일본 병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대리 적대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⁵⁴⁾

결국 3차 특별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영하여 요동반도 반환 등 러시아의 최종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청 제국 북부는 현상유지하며,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일본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고 극동의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만주 남부의 점령을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 일본이 단호하게 우리의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일본 정부에 선언한다.
2. 공식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점령의 의도는 없으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만주 남부 점령 포기를 강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통보한다.⁵⁵⁾

러시아는 일본의 만주 지역 진출과 한반도의 병합을 저지하기 위해

베리아 철도를 부설 중이던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53)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80~81,

54)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81,

55) Красный Архив 52, с.84.

프랑스·독일을 설득하여 삼국간섭을 주도했다. 1895년 4월 23일 러시아·프랑스·독일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5월 4일 삼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요동반도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을 삼국 대표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5월 5일 즈푸(之罘)에서 비준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국을 대신하여 조선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순과 요동반도를 포기한 일본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약소국 조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내정과 군사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만주 진출을 저지했지만, 일본의 조선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베리아 철도의 완공까지 러시아는 만주 지역의 안정과 조선의 현상유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에도 시베리아 철도 완공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만주 지역과 조선에서의 확고한 영향력을 확보할 때까지 일본과 본격적인 충돌은 피하는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⁵⁶⁾

맺음말

이상에서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개입 과정을 동아시아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수집한 동학 농민 운동 정보와 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60년 이래로 조선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의 열악한 식량 사정과 부족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56) 한동훈, 앞의 박사학위논문, 282~283쪽.

위해 조선과의 우호적 관계 수립이 필수였다. 조선과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 러시아는 자국을 견제하는 다른 국가들, 즉 청국, 영국, 일본의 영향력이 조선에서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을 신중하게 확대해야 했다.

당시 극동지역의 군사력과 물자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았다. 조선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던 시기 다른 열강의 조약체결과 개정을 관망하면서 조약의 혜택을 균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거문도 사건 이후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취약한 안보와 전력을 절감하게 되면서 종래 관망정책이 조선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 즉 조선에 대한 청국의 우월한 입지를 인정하여 다른 열강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1888년 개최된 특별위원회에서 조선의 현상유지 정책이 채택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가 구상한 조선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동아시아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원인과 경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본국에 보고하였다. 동아시아 삼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은 동학농민운동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였다. 전술한 드미트렙스키, 보가크, 카시니의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은 동학농민운동이 청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 열강의 군함이나 군대 파병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즉, 동학농민운동은 러시아의 현상유지 정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러시아 외교관들의 예견대로 조선에서 청·일 양국의 군대 충돌, 즉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청일전쟁 발발 이후 동학농민운동은 더 이상 러시아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내부 반란, 봉기 수준으로 조선이 청국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국내문제였다. 반면, 청일 양국 군대의 충돌은 다른 열강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전혀 다른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철병 교섭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조선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으나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을 선택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했다. 특히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리로 배상금과 영토 할양 등 청국으로부터 막대한 전리품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하여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 러시아는 더 이상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할 수 없었다.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했다. 즉,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청·일의 대립에서 러·일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투고일 : 2024. 9. 29. 심사완료일 : 2024. 11. 7. 게재확정일 : 2024. 11. 15.

참고문헌

〈자료〉

김종현, 2011, 『러시아문서 번역집 II』, 선인.

박재만, 2013, 『러시아문서 번역집 VIII』, 선인.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АВПРИ').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 'РГАВМФ').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극동 러시아 국립 역사 문서보관소, 'РГИА ДВ')

Красный архив 50-51, 52.

Сборник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топографических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по азии, выпуск LX(아시아의 지리적 지형과 통계자료 수집, 제60편, 이하 'СГТСМА'), С.-ПЕТЕРБУРГ, 1895.

〈단행본〉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지음, 민경현 옮김, 2010, 『러시아와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벨라 보리소브나 박 지음, 최덕규·김종현 옮김, 2020, 『러시아 외교관 베베르와 조선』, 동북아역사재단.

와다 하루키, 2019,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1, 한길사.

조재곤, 2024,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 푸른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991~1997, 『1894년 농민전쟁연구』 1~5, 역사비평사.

〈논문〉

양승조, 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史叢』 8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77~316쪽.

한동훈, 2021, 「19세기 후반 조선과 러시아의 상호인식과 외교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Russia's Perception of the Situation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Triple Intervention

Han do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ussia's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an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Russia's Joseon policy that followe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as a large-scale popular uprising that occurred in the late 19th century amid political and social contradictions and the accelerated economic invasion of foreign powers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 The Donghak Peasant Army raised the banner of "anti-feudalism and anti-foreign powers" and proposed a reform plan for the Joseon government and established a central government office, thereby attempting to resolv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adictions of the time on their own.

However, in relation to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China and Japa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surrounding great powers began to respond quickly and closely to the new developments. Therefore, in order to structurally understand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we must not only study the Donghak Peasant Army itself, but also pay attention to the trends of the Western powers. The Donghak Peasant Army's occupation of Jeonju Castle was not only the trigger for

*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Military Branch, Senior Researcher

the Sino-Japanese War, but also the starting point of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such as the Triple Interven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by the Western powers, the target of the Donghak Peasant Army's "anti-feudalism and anti-foreign powers," especially Russia, which led the Triple Intervention, and its influence on Joseon policies.

After Russia established a border with Joseon in 1860, it had to establish friendly relations with Joseon in order to resolve the poor economic and military situation in the newly acquired Maritime Province. After experiencing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with Joseon (1884), the Secret Treaty of Joseon and Russia, and the British occupation of Geomundo Island, Russia aimed to maintain Joseon's "status quo" policy until the vulnerable conditions of the Maritime Province were me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94 was an event that threatened this Russian policy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Russian diplomats stationed in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Russian Minister to Joseon Dmitrevski, the Russian Military Attache to Japan Vogak, and the Russian Minister to China Cassini, gathered information on the causes and progres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reported it to their home countries. They pointed out that the causes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ere the contradictions within Joseon society, and expressed their view to their home governments that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would have an impact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Russian diplomats stationed in East Asia had anticipated, the situation in Joseon had become more serious. The conflict between Qing and Japan had intensified over the withdrawal of the Qing and Japanese troops that had entered Joseon to suppress the Donghak Peasant Army. Russia had sought to increase its influence and voice in Joseon by taking the lead in the withdrawal issue. However, when Japan refused and

started a war with China, Russia could no longer remain a passive mediator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in Joseon.

After Japan'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Japan took enormous spoils of war, including reparations and the cession of the Liaodong Peninsula,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Joseon, Russia now needed to actively intervene to check Japan. In the end, Russia, along with France and Germany, attempted to pressure Japan through the Triple Intervention while expanding its influence over Joseon. In other words, the Donghak Peasant Movement led to a new phas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Joseon, from the confrontation between Qing and Japan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Key word : Donghak, status quo, Dmitrevski, Vogak, Triple Intervention